제1장 선 사 시 대

1. 구석기시대와 보령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인류가 처음 출현한 것은 지금부터 약 300만~350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서 우리나라와 그 주변 지역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이다.

그러나 인류는 출현하면서부터 문자를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니어서 문자가 발명될 때까지 인류의 생활 모습은 알 수 없다. 따라서 문자가 없어서 인류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없는 시대는 그들이 사용한 도구 등 유물・유적을 중심으로 인류의 생활 모습을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선사시대(先史時代)라고 한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초기의 시기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여 문자를 사용하여 생활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놓은 시대를 역사시대(歷史時代)라고 한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가공하여 만든 뗀석기(타제석기)를 가지고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생활하였으며,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거나 강가에서 막집을 짓고 살았다. 그리고 무리를 이루어 큰 사냥감을 찾아다니며 생활하였고, 무리 가운데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갖지는 못했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동체적 생활을 하였다.

이와 같은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유적지는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보령지역은 남북으로 가늘고 긴 형태로 서쪽이 대부분 바다와 접해 있으며,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많은 섬들이 있어서 수산물이 풍부하다. 또한 웅천천・대천천 등의 하천이 바다로 유입되며 그 유역은 비록 넓지는 않지만 평야를 형성해 수리 관개에 편리하다.

따라서 그다지 가뭄의 피해가 크지 않고, 토지는 대체로 비옥해서 농경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보령지역은 예로부터 농산물과 수산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현재까지 보령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의 유물이나 유적이 확인된 바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것은 1960년대 초 함북 웅기 굴포리 유적을 통해서이다. 남한에서는 1964년 충남 공주 석장리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구석기시대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대전·충청지역의 구석기 유적은 현재까지 공주 석장리 이외에 대전 노은동 유적, 충북 청원 소로리 유적, 청주 봉명동 유적 등이 있다.

이러한 충청지역의 구석기 유적이 주로 내륙지역에서 발견되었고, 보령을 비롯한 충청 서해안 지역은 아직 발견된 예가 없다. 따라서 구석기 시대에 보령지역에 인류가 거주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1994년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발굴조사 과정에서 홍적세의 고토양층(古土壤層)이 확인되고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뗀석기(타제석기)가 수습된 바 있어 보령지역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2. 신석기시대와 보령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용도를 가진 간석기(마제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 불에 구워서 만든 토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토기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도 발견되고 있다. 이것들은 무늬가 없는 것, 토기 몸체에 덧띠를 붙인 것, 눌러 찍은 무늬가 있는 것으로 각각 이른민무늬토기, 덧무늬토기, 눌러찍기문 토기(압인문토기)라고 한다. 이러한 토기는 제주 한경 고산리, 강원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패총) 등에서 발견된다.

빗살무늬토기가 나온 유적은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인 곳은 서울 암사동, 김해 수가리 등으로 대부분 바닷가나 강가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신석기인들은 강가나 바닷가에서 간석기나 빗살무늬 토기를 이용하여 원시농경을 하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경생활과 함께 주거도 정착생활로 접어들게 되어 집을 짓게 되었다. 신석기시대의 집을 움집이라 부른다. 움집터는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꼴(장방형)이며,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취사 난방을 위한 화덕이 위치하였다.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으로 출입문을 내었으며, 4~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였다.

농경과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어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 주는 존재인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 자기 부족을 특정한 동식물과 연결시켜 그것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등의 신앙이 생겨나게 되었다.

보령지역의 신석기 시대인의 생활모습을 보여 주는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충남의 내륙이나 해안지대에 걸쳐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예에 따라 몇 군데에서 흔적이 보인다.

보령지역에서 최초로 조사 보고된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鰲川面 狐島, 元山島, 揷矢島, 外煙島, 鹿島 등 도서지방의 조개더미(패총)이다. 여기서 발견된 유물은 빗살무늬토기편과 무문토기편, 석기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유적의 성격은 알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령시 내항동에서 마제석기가 출토되어 부여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음
- 외연도 패총 : 압문토기(押文土器) 출토
- 녹도 패총 : 점판암 석기 토기 등 출토
- 원산도 패총 : 자루달린 마제석검(磨製石劍) 석부(石斧) 토기 등 출토
- 삽시도 패총 : 토기편과 석기류 출토
- 고대도 패총 : 마제석기류 토기편 석부 등 출토

자료 : 韓國文化遺蹟總覽

한편 발굴을 통해 확인된 보령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1994~1995년의 발굴 결과인 周浦面 館山里 유적과 舟橋面 寬倉里 유적이 있다.

주교면 관창리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움집 4기가 확인되었는데, 평면 장방형이며, 네 모서리에 50cm 내외의 기둥구멍이 있고 중앙에는 화덕자리가 있고 출입구 시설이 있으며,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이곳 관산리와 관창리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해안에 근접한 낮은 구릉 지대이기 때문에 이 시기 보령지역의 신석기인들은 해안에 살면서 해산물과, 육상의 자원을 이용하여 생존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해안이나 강가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3. 청동기시대와 보령

석기시대는 돌을 가공하여 도구를 만들어 쓴 시대를 말하는 반면, 청동기시대는 금속인 청동을 사용하여 도구를 만들어 쓴 시대이다. 즉 금속을 이용하여 인류는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귀 등의 석기와,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등의 청동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의 토기가 있다. 이들 유물은 청동기 시대의 집터를 비롯하여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등 당시의 무덤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체로 기원전 1000년경에 시작되어 기원전 300년경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 신석기시대와는 다른 몇 가지의 사회 변화가 나타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농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되어 생산경제로 접어들고, 그로 인하여 이런 현상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역시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농경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농경의 시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게 되고, 그 잉여 생산물을 둘러싸고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집단 간에 싸움이나 전쟁 등이 발생되고, 승리한 개인이나 집단은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이 빈부차를 가속화 시켜서 개인이나 집단 간에는 불평등한 관계가 나타난다. 즉 계급의 발생을 가져오는 것이다. 여기서 지배와 피지배 집단이 생겨 국가의 탄생으로 연결되는 시기가 청동기 시대인 것이다.

보령지역에서는 청동기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모습들은 지석묘(고인돌)나 집자리 유적 등을 통하여 보령지역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가 보령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유적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청동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적은 많이 나타나므로 보령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크게 발달했음을 잘 보여 준다.

보령지역의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여러 지점에서 확인되어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 분묘유적인 支石墓(고인돌)는 꾸준히 조사되어 학계에 발표되어

왔다. 1971년에는 최초로 이은창이 주산면 동오리와 삼곡리의 고인돌과 선돌을 조사 보고하였다.

1990년에는 이융조 하문식이 10개 지역 61기, 1991년에는 12개 지역 55기의 고인돌을 조사 발표하였으며, 1997년에는 백제문화개발연구원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100여 기의 고인돌을 종합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보령의 황의호는 보령지역을 샅샅이 답사하여 약 270여 기의 고인돌을 조사 확인하였다. 따라서 보령지역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고인돌 유적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 표 참조)

보령지방 고인돌의 面里별 분포

洞面名	지구수	고인돌수	동리별 고인돌수	洞面名	지구수	고인돌수	리별 고인돌수
청소면	1	1	야현리1	남포면	23	110	봉덕리5 소송리32 달산리13 신흥리19 양기리33 제석리1 월전리6 삼현리1
주포면	5	17	연지리15, 관산리2	웅천읍	21	79	죽청리52 소황리6 황교리10 성동리1 노천리10
주교면	3	14	관창리3, 주교리1, 신대리10.	주산면	11	36	창암리8 주야리7 금암리10 황률리3 화평리3 동오리5
대신동	3	6	화산동6	미산면	1	3	평라리3
청라면	3	9	황룡리2, 신산리1, 의평리6.	총계	72	278	
성주면	1	3	개화리3				

이들 보령지역의 고인돌의 분포는 산기슭이나 구릉지대, 하천 주변의 충적평야 등지에 위치한다. 고인돌의 형식은 웅천 죽청리 장터마을의 고인돌과 같이 몇 개 정도만이 북방식의 형태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은 남방식 고인돌로 알려져 있다.

보령지역의 대표적인 고인돌인 죽청리 장터마을 고인돌은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가 400×230×220cm, 둘레가 1,110cm의 크기로 북쪽은 좁고, 남쪽으로 넓은 모양을 하고 있다. 덮개돌 밑에는 2개의 굄돌과 2개의 막음돌이 높게 고여 있다. 보령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인돌이다.

이 죽청리 장터마을 고인돌 주위에는 15기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은 산기슭에 이어진 평지로 해발고도는 30여 m이고 주변은 적색토로 되어 있으며, 서쪽은 논으로 개간되었다.

그리고 주산면 동오리의 선돌 마을에는 1기의 선돌과 5기의 고인돌로 이루어진 고인돌군이 있다. 이곳은 해발 37m 정도로, 동오리 마을의 입구이며 웅천천의 범람원과 골짜기가 만나는 곳이다.

마을은 골짜기 주변에 들어서 있다. 남쪽에는 지팽이 바위로 불리는 선돌이 있는데, 이 선돌은 편마암으로 높이는 268cm 지표둘레 240cm의 크기이다. 그 옆에 있는 고인돌은 편마암의 덮개돌이 775×470×210cm, 둘레 2,070cm의 초대형 덮개돌로 된 고인돌이다.

보령 남부지역의 청동기유적 발굴은 웅천천 상류인 보령시 미산면 일대의 보령댐 수몰지구에서 실시되었다. 여기서 3기의 고인돌을 발굴하였고, 민무늬토기, 붉은색 간토기, 돌괭이, 간석기 등을 수습하였다. 그리고 석곽형으로 된 4기의 돌덧널무덤에서는 민무늬토기가 수습되었으며, 청동기시대의 주거유적 발굴과 함께, 보리 밀 등의 곡식과 민무늬토기, 간석기, 화살촉 등이 수습되었다.

그런데 이 유적 발굴에서 특징 있는 점은 14기의 돌널무덤이 발굴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돌널무덤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 '돌깐널무덤'으로 명명되었고, 이 14기의 돌깐널무덤은 국내 최초의 형식으로 '평나리식 돌깐널무덤'으로 보고된 것이었다.

보령지역에서는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시대의 주거유적도 여러 곳에서 발견 조사되었다.

먼저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유적이 있다. 오천면 교성리의 선림사 뒷산 해발 188m의 산정상에 위치하는 독특한 고지성 주거유적이다. 1986~1987년에 걸쳐 총 9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방형의 평면구조이고 대체로 3~4m 정도의 크기이다. 토기로는 덧띠토기, 목긴 검은간토기, 붉은간토기가 수습되었고, 석기로는 돌도끼, 홈자귀, 반달돌칼, 돌창, 돌칼, 숫돌, 가락바퀴가 수습되었다. 그 중 돌낫 반달돌칼 삼각형 돌칼 등은 농경생활과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숫돌 등 석기가공과 관련된 유물도 있다.

이 유적지의 시기는 BC4C~3C경으로 추정된다. 이 교성리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지는 주변에 분포한 여러 유적들, 즉 남포·웅천지구에 집중된 고인돌군, 관창리 유적, 미산 평나리 유적 등과 함께 보령지역의 청동기 시대상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주거유적 11기가 확인되었다. 이 주거지는 해발 25m~30m 내외의 구릉에 있으며, 반 지하식 움집이고 출토 유물은 구순각목토기,

송국리형 토기, 점토대 토기, 두형토기(豆形土器), 붉은 간토기 등의 토기류와 도끼, 화살촉, 숫돌 등의 석기류가 있다. BC 10C~5C경에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수혈식 주거지 16기와 석관묘 5기가 조사되었다. 그 가운데 고려대학교가 조사한 4호 주거지는 길이 20.4m, 너비 5.8m의 크기로 지금까지 한반도 남부에서 조사된 주거지 중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화덕과 출입구 시설 등이 있다.

그 이외에도 평면 장방형의 주거지와 평면 원형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있다.

관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구순각목토기, 이중구연토기, 단사선문, 격자문 문양의 토기와 도끼, 화살촉, 돌칼, 숫돌, 가락바퀴 등이 있다. 관산리의 청동기시대 석관묘는 판석 혹은 괴석을 사용한 소형 석관묘 5기가 조사되었고, 마제석검 1개가 수습되었다. 이 유적의 연대는 BC 10C~8C로 추정되었다.

보령시 주포면 연지리에서도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이 주거지는 평면 원형의 송국리형 주거지로 무문토기, 석촉편, 갈돌 등이 수습되었다.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에서도 대규모의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이 조사되었다. 고려대학교가 발굴한 곳에서는 100여 기의 송국리형 평면 원형주거지와, 생활용기를 제작했던 가마터 21기, 저장시설 50여 기가 조사되었고 당시의 논으로 추정되는 농경유적도 확인되었다. 보령지역의 청동기시대 농경문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적이었다.

충남대학교가 발굴한 곳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46기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관창리 주거지에서는 송국리형토기, 구순각목토기, 점토대토기, 두형토기(豆形土器), 붉은간토기, 검은간토기 등의 토기류와 돌칼, 화살촉, 도끼, 석검 등의 석기와 가락바퀴가 출토되었다.

이 관창리 유적은 BC 9C~4C유적으로 추정되었다. 이 관창리 유적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지가 집단 취락지로 조사되어 중기 무문토기 문화로부터 후기 무문토기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에서도 청동기시대 주거지 16기, 탁자식 지석묘 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송국리형 4기, 세장방형 5기이고, 단사선문이 시문된 무문토기, 마제석검, 화살촉, 도끼, 반월형 석도, 숫돌, 토제 가락바퀴 등이 수습되었다.

이밖에 주산면 유곡리, 야룡리, 삼곡리, 청라면 나원리, 남포면 소송리, 미산면 평라리 등에서 무문토기편, 돌칼, 가락바퀴, 돌도끼 등의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었다.

또한 원산도, 장고도, 삽시도 등지의 청동기시대에 형성된 조개무지도 확인되고 있다.

보령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은 미산 평라리 유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령 북부지역에 집중되었다. 웅천천 주변과 남포면 지역에 집중된 고인돌과, 북방식 고인돌의 존재, 평나리식 돌깐널무덤으로 명명된 독특한 묘제의 발굴, 관산리 지역의 소형 석관묘는 청동기시대 보령지역 묘제 이해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오천면, 청소면, 주교면, 주포면의 보령 북부지역 주거지는 대부분이 송국리형 주거지로서 보령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이해의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